

우크라 전쟁 9개월 사망자만 8300명

민간인 부상자도 1만1000명 러 점령지 포함엔 훨씬 많을 것 전쟁범죄 조사 4만5000건 기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이래 9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 437명을 포함한 민간인 8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전날 사망자 통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스틴 총장은 부상한 민간인도 1만1000명에 달했다며 집계가 어려운 동남부 러시아 점령지를 포함하면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4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OHCHR)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린이 408명을 포함한 6557명이 살해됐고, 어린이 750명 등 1만74명이 다쳤다고 밝힌 바 있다.

OHCHR은 3월 한 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했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망자 수는 통계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관측했다.

러시아는 전선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민간인 거주 마을과 도심을 표적으로 미사일 폭격을 가하며 대규모 사상자를 내고 있다.

4월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을 폭격한 미사일로 50여명이 사망했고, 9월 자포리자주를 지나던 민간인 호송 차량을 향한 공습은 최소 30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희생자들은 당시 피난길에 오르던 중이었다.

빈니차에서는 7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던 4살

아이가 미사일 공격 파편에 희생당해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겼다.

코스틴 총장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침공 직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전쟁범죄를 지속해서 조사해 총 4만5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용의자 216명을 상대로 전쟁범죄 연루 혐의를 통보했으며, 그중 17명은 러시아 전쟁포로라고도 덧붙였다.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는 북부 부차, 키이우, 동북부 이지움, 남부 헤르손 등 전방위를 걸쳐 이뤄졌다는 게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이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점령지에서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전쟁범죄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드미트로 루비네츠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위원은 18일 SNS를 통해 헤르손에서 청소년 수용소가 발견됐으며 그곳에서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루비네츠 위원은 "청소년을 구금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었다"며 "일부 남자아이들은 14살 정도로 보였다는 증언들도 나왔다"고 말했다.

올레그 시네구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같은 날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군이 유치원 침대에 지뢰를 심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의 폭격으로 학교 수천 곳이 피해를 봤고 수백 곳의 아예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시민들이 비영리 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의 식수를 얻고자 물탱크 앞에 줄서 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수복한 헤르손은 러시아군 폭격으로 전력과 상수도 시설 등이 파괴돼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미국 성소수자 클럽서 총기난사...5명 사망 지난 19일(현지시간) 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성소수자 클럽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클럽에 있던 손님들에 의해 제한된 범인(22)을 상대로 중범죄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건 다음날 클럽 근처에서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파산 FTX 정치후원금 968억원 뿌렸다

방산·자동차 업계보다 더 '큰 손'

붕괴 위기에 처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경영진이 최근 미국 워싱턴 정가에 천문학적인 정치후원금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선거 기부금 흐름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책임정치센터(CRP)를 인용해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트 전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FTX 임원들이 최근 18개월 동안 각종 선거에 총 7210만달러(약 968억원) 이상을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FTX의 정치자금 후원은 같은 기간 전체 가상화폐 업계의 정치 후원금 7300만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FTX 덕분에 가상화폐 산업은 방위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선거자금을 기부한 '큰 손'이 됐다.

특히 뱅크먼-프리트 전 CEO는 이번 중간선거에 앞서 정치인들 또는 정치인들과 연계된 정치후원위원회(PAC) 등에 3990만달러(약 535억9000만원)를 후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돈은 대부분 민주당 정치인이나 진보 단체들에 흘러 들어갔다고 CRP는 전했다.

반대로 FTX 고위 임원인 라이언 살라메는 2천300만달러(약 308억9000만원)를 대부분 공화당과 보수 단체에 후원했다.

CRP에 따르면 뱅크먼-프리트는 조지 소로스 다음으로 민주당에 가장 많은 돈을 뿌린 2위 후원자에 올랐고, 살라메는 공화당 후원자 중 11위에 랭크됐다.

뱅크먼-프리트는 또 다른 FTX 임원 니샤드 싱과 함께 적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연계된 PAC에 300만달러를,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과 연계된 PAC에는 단독으로 600만달러를 각각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상화폐 산업을 옹호하는 정치단체와 개인들에게도 후원금을 아끼지 않았다. /연합뉴스

탈레반, 절도범 등 19명에 공개 채찍질

공개 태형 집행 첫 공식 인정

이슬람 극단주의 정파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절도범 등이 공개적으로 채찍질 처벌을 받았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20일 보도했다.

탈레반 정부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형 집행은 지난 11일 북동부 타카르주 탈로칸의 모스크(이슬람 사원)에서 금요일 예배 후 진행됐다.

대법원 관리 압둘 라힘 라시드는 "원로, 학자, 주민 앞에서 여성 9명 등 19명이 39대씩 채찍을 맞았다"며 이들은 강도, 절도 등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라시드는 이들 관련 사안은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 법원 두 곳의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재집권에 성공한 탈레반이 공개 태형 집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차 집권기(1996~2001년) 때 공개 처형, 손발 절단, 투석 등 가혹한 형벌을 집행했던 탈레반은 최근 과거의 '공포통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탈레반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쿠티자다는 지난 12일 판사들에게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형벌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방역 고삐 다시 죄는 중국...베이징 이어 스자좡·우한도 봉쇄

나흘 연속 감염자 2만명 넘어

다중시설 폐쇄·주민 외출 통제

중국에서 다시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다.

21일 평파이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성도(首都) 스자좡은 이날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장안구(區) 등 도심 6개 구에 대해 사실상 봉쇄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 고위험 지역 주민은 집 밖을 나갈 수 없고, 중·저위험 지역 주민도 집에 머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 사실상 외출을 통제했다.

봉쇄 지역은 가구마다 한 명만 24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고 생필품 구매를 위해 2시간 외출할 수 있다.

식당, 상업시설, 체육관 등 실내 밀집 시설이 폐쇄됐고, 생산시설은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 폐쇄 루프식 조업에 들어갔으며 초·중·고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다.

인구 1100만 명인 스자좡은 중국 방역 당국이 방역 완화 20가지 조치를 발표하자 지난 13일 거리 곳곳의 PCR 검사소를 철거하고, 대중교통 탑승 때 하던 PCR 검사 확인도 중단한 바 있다.

후베이성의 성도 우한도 이날부터 닷새 동안 도심 5개 서취(구 아래 행정단위)를 봉쇄, 소방물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의 문을 닫고 오피스텔을 폐쇄해 재택근무를 명했다.

앞서 베이징은 전날 신규 감염자가 6000명을 넘어서자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일부 지역의 사우나와 PC방, 헬스클럽, 영화관 등 실내 밀집 시설을 폐쇄하고 식당 내 식사를 금지했다.

광둥성 광저우와 산둥성 지난 등은 지난 주말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일부 지역의 과도한 방역을 비판해온 중국의 관변 언론인 후시진은 전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글을 올려 "안전한 방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적어도 내년 봄까지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런 논의는 무의미하고, 사회

회적 혼란과 불안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국의 방역 완화 20가지 조치 발표 이후 감염자 발생 지역만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4~5월 코로나19 유행기와 비교해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설명한 뒤 "현재 진지하게 논의할 점은 어떻게 20가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 코로나19의 엄중한 확산을 막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봉쇄 지역을 줄이고, 사회적인 활동 제한 시간을 단축한다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성공적인 것"이라고 당국의 정밀 방역 정책을 지지하면서 성급한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는 선을 그었다.

중국에서는 지난 16일 이후 나흘 연속 신규 감염자가 2만 명을 넘어서 올해 봄 코로나19 확산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베이징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80대가 사망했는데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 사례로는 지난 5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소프트웨어
(SW)

빅데이터인공지능
(AI)

미디어콘텐츠
(VR)

디지털리터러시
(오피스활용)

062)380-0606, 064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